01 교회소식
교회 창립 39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기까지 변함없는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
그 마음과 뜻을 알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함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케 한다.

03 기획특집
주의 도 알기를 즐겨하니~
성결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 진리의 길로 인도받으니 영육 간에 축복이 넘친다는 남현희 집사.

04 간증
멈추지 않는 권능의 역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치료받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만민뉴스

제953호 2021년 10월 10일(창립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루기까지

교회 창립 39주년 맞아 하나님께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 아래 1982년 10월 10일 창립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1982년 7월 25일에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어린아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개척해 그해 10월 10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

개척 때부터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초대교회처럼 빠르게 부흥해 1991년 2월에는 등록교인 1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해 7월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가 형성되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92 세계성령화대성회' 공동대회장, '95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실무대회장 등 각종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하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우간다를 시작으로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개최하여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결과 회교, 힌두교, 가톨릭 신자들이 개종함은 물론 무수한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이 제단과 함께하심을 보장하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 받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GCN방송과 책자,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함으로 영혼 구원은 물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별히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인 설교 '십자가의 도'가 61개 언어로 발간되는 등 문서 선교도 활발히 이뤄왔는데, 현재 112종의 신앙 서적과 654종의 번역 도서가 출간되었고 '만민뉴스'가 발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책으로도 발간돼 아마존 킨들, 애플 아이북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성전 건축을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만민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영적 장수로 이끌고 계신다. 재창조의 권능과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결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12)

만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으로 이뤄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지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육의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은 극히 드문 현실이지요.

저는 7년간의 병고 끝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만 기다리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고쳐주셨고, 주님을 영접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부흥성회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았고, 목사님들께 질문해 보고 또 유명한 주석들을 찾아 읽어 보아도 그 의미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시작해 7년간 매달렸습니다. 시간만 나면 산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부르짖어 기도했고, 온종일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아까워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지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함 속에 성경 66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고, 이것은 제게 꿀과 송이 꿀보다 달고 생명같이 소중한 보화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구원과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요. 만민의 역사 속에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1.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혈기, 미움, 간음, 욕심, 교만, 간사함 등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요 성결을 이루는 것이지요. 죄악을 벗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사랑과 선, 진리로 채워 마음을 변화시킨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고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살전 5:23).

제가 초신자 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는 말도 들어봤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지요. 성격도, 습관도 바꾸고 근본의 죄성도 뽑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어둠을 떠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을 이룰 것을 반복적으로 명하시지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하나 뿌리 뽑게 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뤄가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려야 할 죄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깊은 마음 근본의 악까지 버리는 방법도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채워야 할 진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열매, 팔복 등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지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아이들과 청년, 아비의 믿음으로 구분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나 성경 지식, 혹은 교회 내 직분으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을 벗어버렸는지, 진리를 채워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지에 따라 그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을 해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고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더 나아가 능력과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요.

전 세계에서 많은 분이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녀, 직장, 질병의 문제 등 늘 시험 환난 중에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알고 성결의 복음을 들은 후에는 삶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응답과 축복이 임했다고 하지요.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2.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말씀

선한 사람들은 우주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요. 그러나 육의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셨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성을 체험해 자유의지 가운데 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거듭 범죄해도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반대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공의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요. 원래 빛과 소리로서 온 우주공간에 가득하게 존재하셨으며, 그 공간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권능과 사랑,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홀로 누리시던 모든 영광과 사랑을 함께 누릴 대상을 얻기로 계획하셨지요. 곧 사람을 지어 이 땅에 경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루시퍼의 배신, 아담의 범죄,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런 사건들을 겪으실 때마다 고통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죄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며 늘 한탄하며 애통하셔야 했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차마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에녹, 아브라함, 모세 등 온 영의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어느 누가 나의 애통한 마음을 알아주고, 어느 누가 내 사랑의 마음을 알아줄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은 그 희생과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참으로 알면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는 데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지요.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는 참 능력의 말씀입니다.

3. 천국을 소망하는 말씀

1984년, 제 생일을 맞은 주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3일 금식을 주관하시고 그동안 기도해 온 천국에 대해 풀어주신다고 하셨지요. 금식을 마치자 성령의 감동함 속에 놀라운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분류돼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낱낱이 설명해 주셨지요.

또한 다 같은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분량(롬 12:3)에 따라 처소가 구분되고 상급과 영광이 달라지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얼굴과 머리, 몸, 의복은 어떠한지, 각 사람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상급이 주어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지요. 막연히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눈앞에 그려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았기에(고후 12:2~4)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생생한 소망이 있기에 위엣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하기보다 '어찌하면 성결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을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결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과 온 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자유의지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감동의 말씀이지요. 또한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갖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세계를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지요.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이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한결같이 큰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일가친척과 이웃, 직장은 물론 세계 곳곳에 성결의 복음이 더욱 창대히 전파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아가니 변화와 소망이 넘칩니다"

남현희 집사 (62세, 2대대 13교구)

저는 프랑스 낭시 2대학에서 불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의 한 대학에서 약 25년 동안 불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 뒤 학교 강의를 그만두고, 문단에 작품을 발표하며 작가로 활동하였지요.

그 당시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던 저는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웠지요. 이재록 목사님의 모습에서도 진솔함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들을 듣던 중 영적인 충격을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라고 표현한다거나 마리아 형태의 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진리에 합당치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출 20:4).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니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표현하셨고, '모친'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지요.

20여 년간 열심히 성당을 다니던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고, 더 나아가 구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 가운데 결국 개신교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30일,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고 그 다음 주인 5월 7일 등록해 만민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천국', '지옥', '창세기 강해', '욥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선', '팔복',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믿음의 분량' 등 열심히 양식 삼으며 매일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는 생활을 하니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았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니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많이 했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가득해 행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에 오기 전에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왼쪽 다리가 많이 저려서 잠드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치료되었고, 심했던 안면 홍조도 치료받았으며, 위 무력증으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호전되었지요. 또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사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영육 간에 많은 축복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은혜로운 제단에 초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성 변비, 안면 근육 경련 치료 등 저희 가족은 이제 건강합니다"

장계화 집사 (44세, 중국 2교구)

저는 20여 년 전에 갖가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후유증으로 만성 변비가 왔습니다. 평소 4~5일 간격으로 배변하니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 불편했으며 무기력했지요. 그러던 중 은사 집회(비대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치료받고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9월 13일,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며 온몸이 뜨거워졌고, 통회자복하였지요.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에는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만성 변비가 치료되어 매일 배변하니 몸이 날아갈 것같이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 꿇지 못하던 왼쪽 무릎까지 치료받았지요.

지난 8월에는 아버지(장중원 집사)께서 15년 된 왼쪽 안면 근육 경련을 치료받으셨습니다. 1분 간격으로 왼쪽 안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경련이 심할 때는 손으로 얼굴을 붙잡으셔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왼쪽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하셨고 시력도 좋지 않고 대인기피증과 우울감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랜선 기도회에 참석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신 후 평안하게 주무셨고, 이후 경련이 일어나지 않아 왼쪽 눈이 온전히 떠지고 얼굴도 정상이 되셨지요. 어머니(노성금 집사)도 이때 척추 결림을 치료받으시고 은사 집회 때에는 오른팔의 통증도 치료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35년간 사로잡혔던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숙데브 성도 (48세, 인도 고락푸르만민교회)

저는 열세 살 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한 주에 두세 차례씩 발작이 일어났고 그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은 항상 무겁고 피곤했으며, 두통과 불에 타는 듯한 눈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요.

늘 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외출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고, 혈기가 심해 사람들과도 자주 싸웠으며, 가족들과도 심하게 다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공부는 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지요.

10여 차례 주술사를 찾아가고,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원을 다 방문해 보았지만 제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제게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고락푸르만민교회의 한 자매의 전도로 2021년 8월에 만민의 양 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일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지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은사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9월 13일, GCNTV HINDI를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한 저는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불이 제 몸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더니 두통과 불에 타는 듯한 눈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웠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인도 칸푸르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고통받던 35년, 주님의 은혜로 한 순간에 다시 태어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삶을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다리가 불붙는 듯 뜨겁더니 극심한 통증이 사라졌어요!"

사키나 아나스타시 코벨리 성도 (72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올 초, 저는 중풍으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 심했으며 추울 때면 뼈가 시리고 냉기가 느껴져 고통스럽고 심할 때에는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앞에 있던 한 분이 제게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신기하게도 이 교회에 다니면 몸의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킨샤사만민교회였고, 성전에 들어서니 담임 한진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하며 설교를 듣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다리가 불붙는 듯 뜨겁더니 극심한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설교 중임에도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가 마칠 때쯤 제 다리는 완전히 좋아졌지요. 할렐루야!

한진범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주었고, 이 귀한 말씀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고통으로 죽어가던 제가 이제는 행복합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으로 만민과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